

우물 속 개구리와 행복

얼음 설한 추운 날엔

따스한 봄 날인양

모락 모락 입김을 뿜어내고

살복려의 한여름엔

등주하면 그리도 시원한 우물 물

사시 사철 변함없이

그 향을 사랑하며

살아가는 우물 개구리

하지만 인정 넘치니

소박한 삶 속에

우물안 물챙이에서 개구리 되겠으니

산동 초등학교 유년 동안

배움의 길 아나연가

변함없이 그 향을 지기며

이웃을 사랑하는

우리는 (나) 행복한 사람

산동 초등학교 36회 졸업

박종은